

재가장애인의 자립을 저해하는 농촌과 도시의 주거실내 환경요소에 대한 비교연구**

Comparative Analysis of Rural and Urban Residential Interior Elements Affecting Physically Disabled's Independence

Author 박지영 Park, Ji-Young / 정회원,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석사과정
장미선 Jang, Mi-Seon / 정회원,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연구교수, 이학박사
이연숙 Lee, Yeun-Sook / 정회원,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교수, 이학박사*

Abstract For those with disabilities, the residential area is the primary place to adapt the disabilities. Since the quality of the area gives a critical impact on their quality of life, it is essential to finding the measures to creat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that supports their independence.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interior elements of the houses that hinder the independence of the physically handicapped in the rural and urban areas, and conducted a survey on a total of 80 physically challenged in Seoul and Yeongwol (40 for each area). As a result,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 houses where they are currently living are hindering their independence regardless of area, and there were regional differences in the level of inconvenience with the size of living room, size of utility room, location of room, lighting and heating environment, ventilation system, deteriorated wallpapers and finishing materials, threshold and floor level difference and humidity control. This study has significance by providing the realistic measures to improve the housing environment of the physically challenged living in the rural and urban areas to be customized to them to increase their quality of life.

Keywords 지체장애인 주거, 자립생활, 실내환경요소
Housing for the Physical Disabled, Independent Living, Indoor Environment Element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주거공간은 모든 사람에게 일상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생활의 중심이자 삶의 터전이다. 특히, 장애인에게 있어 주거공간은 장애를 적응하는 일차적 영역으로서 주거공간의 질은 이들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¹⁾ 즉, 주거공간이 양질의 환경으로 조성되어 장애인의 삶을 포용할 때, 장애인은 주거 내에서 자립심을 기를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실제적인 자립성을 지원할 수 있는 주거공간과 주거를 매개로 하는 장애인 삶의 질은 그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²⁾

최근 주거환경의 물리적 장애요소를 극복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다. 기존의 장애인 생활환경은 재가장애인이 전체 등록 장애인의 97%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장애인시설과 연계하여 논의되어 왔고, 재가장애인의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³⁾ 최근 들어 재가장애인의 자립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⁴⁾ 이들 사업은 일부 편의시설 설치와 같은 단위사업을 개별적으로 시행하거나 단기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등의 수준으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주거성능 향상을 위한 개조의 형태는 아니다.⁵⁾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yeunsooklee@yonsei.ac.kr

** 이 논문은 국토교통부 주거환경연구사업의 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15AUDP-B068892-03#)

1) Oliver, M. Understanding Disability: From Theory to Practice, Macmillan Press, London, 1996, p.21

2) RW Marans, Basic human needs and the housing environment, Housing People, London, 1977, p.44

3) 보건복지부,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2, p.8

4)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주거지원 방안 연구, 2010, p.1

5) 서수경 외, 주거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2), 경제·

장애인에게 장애의 유형과 그 정도에 따라 주택 내에 서 요구되는 물리적 환경의 특성은 매우 다양하다. 즉, 지체장애인의 경우 휠체어나 이동보조기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요구되는 활동공간의 규모와 범위, 그리고 세부 디자인 요소들이 다른 유형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와는 다르다. 따라서 장애인 주택은 장애인들의 보유한 장애유형과 주생활 요구에 기반한 적정 환경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개별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과 주거요구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편, 장애인들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실태는 자립을 위해 요구되는 주거성능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장애인의 주거환경을 다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도시지역 장애인의 주거실태를 다룬 연구들은 있으나,⁶⁾ 농촌지역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실태를 조사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⁷⁾ 농촌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농촌의 재가장애인 주거환경은 도시의 주거환경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도시지역 장애인의 자립을 증진시키기 위한 주거성능 향상 기준이 농촌장애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⁸⁾ 이러한 기존 주거환경의 차이는 농촌과 도시의 재가 장애인이 불편함을 느끼는 주거요소 또한 상이할 것이며 이는 곧 그들의 자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과 도시지역 재가 지체장애인의 자립을 저해하는 주택 내 실내환경요소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재가지체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맞춤형으로 주택을 개조하는데 있어 농촌과 도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농촌과 도시지역에서 장애인들의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주거환경요소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로서, 구조화된 설문조사도구를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중 물리적 환경의 영향을 좀 더 직접적으로 받는 장애유형인 지체장애인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체장애로 인해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장애인들 중 극도의 중증장애로 인해 조사에 자발적 참여가 어려운 이들을 제외하고 그 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자립을 저해하는 주택의 주거

환경요소의 지역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서울 지역과 영월지역에 거주하는 자들로 그 대상을 한정하였다. 농촌지역 재가장애인으로 영월 지역 거주 장애인을 선택한 이유는 영월 지역은 장애인 인구수가 지역 인구수의 약 11%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9,526명으로 심각한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⁹⁾ 미래 고령화 사회에 후천적 장애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쇠퇴하는 농촌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도시지역 재가장애인으로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을 한정할 이유는 서울이 전국 장애인구의 16.1%를 차지하고 있으며¹⁰⁾, 장애인 자립생활실천 세미나 개최이후 장애인 독립생활 시범 사업 등이 등장한 지역¹¹⁾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에서 장애인 자립 실현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시스템이 다른 지역에 비해 먼저 갖추어져 있어 농촌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그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져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재가지체장애인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택의 공간적 범위는 농촌과 도시지역 주택의 특성을 상호비교할 수 있도록 현관에서 시작되는 주택 실내공간만을 포함하였는데, 현관, 거실, 부엌, 화장실, 침실, 발코니 공간만을 다루었다. 아파트의 주동출입구 혹은 접근로, 복도공간 등도 거주자의 일상생활 자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실내환경요소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이들 공간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1) 조사대상자 선정과 조사방법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인 재가 지체장애인을 효율적으로 표집하기 위하여 군집표집방법(Cluster Sampling)을 활용하였다. 서울지역 장애인의 경우, 서울시내에 위치한 장애인 자립센터를 이용하는 재가지체장애인 중 센터책임자 및 활동보조인의 추천을 받은 후,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스스로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만 19세 이상의 장애인 40명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생활보조인 혹은 센터팀장을 통해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거하는 형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영월지역 장애인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 실증테스트베드가 소재한 영월군 봉래면을 대상으로 마을 이장을 통해 대상자를 추천받았으며, 본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대상자의 동의하에 총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영월지역의 경우 각 대상자의 방문이 도시보다는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 사회복지사 대동 하에 조사도구를 직접 배부하고 수거하였다.¹²⁾

입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4, p.5

6) 박지영, 이연숙, 이동주, 장순순, 관찰 및 심층인터뷰를 통한 재가장애인의 주거실태 분석, 한국주거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6권 제2호, 2013, p.100

7) 이연숙, 이동주, 박지영, 장애인 맞춤형 주택 계획 관점에서 본 농촌지역 지체장애인 주거 특성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통권113호, 2015, p.155

8) Ibid., p.155

9) 2014년 기준, 강원도 영월의 인구수는 40,178명이며 장애인구수는 3,524명, 지체장애인이 2,060명이다.

영월군 홈페이지 : <http://www.yw.go.kr>

1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눈에 보는 2015 장애인통계, 2014, p.4

11) 서울복지재단,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실태조사 및 운영모델 개발, 2007, p.28

(2) 조사내용 및 자료분석법

설문조사의 내용은 크게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주택관련 특성, 현 주택에서의 일상생활 자립도, 자립을 저해하는 실내환경요소이며, 이를 측정도구를 연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1>

<표 1> 조사내용 및 측정도구

구분	구체적인 내용	도구
일반적 특성	거주지역, 성별, 연령 장애등급, 복수장애, 보조기구 사용여부, 월평균 국가지원금	일반 설문 항목
주택관련 특성	주택유형, 주거비, 거주기간, 주택 경과 년 수, 주택규모,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	일반 설문 항목
현 주택 내 일상생활 자립도	일상생활 활동 정도	K-FIM 척도 ¹³⁾
자립을 저해하는 실내환경요소	25개의 실내환경 요소에 대한 거주자의 평가, 전반적인 평가, 일상생활 활동 자립을 방해하는 공간 및 실내환경 요소	선행 연구 토대로 개발

자립을 저해하는 실내환경요소의 항목은 기존 장애인 주택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재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장애인 전문가 워크숍을 진행하여 장애인 주택에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항목을 선별한 선행연구들¹⁴⁾¹⁵⁾을 기초로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273개의 장애인주택의 필수 가이드라인 중 지체장애인에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항목들을 선별하여 조사도구에 활용하였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¹⁶⁾, 장애인주택 필수 디자인가이드라인은 농촌지역에 적용하기에는 여전히 포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밝혀졌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IRB 승인받은 날짜 2015년 10월 27일부터 약 1개월 간 해당 자립센터들을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¹⁷⁾ 총 80부의 설문지를 수집하여 유효부수 80부를

12)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IRB) 심사를 통과한 내용이다. IRB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등을 심의하고 피험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심의 기구이다.

홈페이지 : irb.yonsei.ac.kr

13) 한국에 맞춰진 FIM도구(기능적 독립 척도: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이하 FIM)이며 총 18개의 항목(식사하기, 목단장하기, 목욕하기, 상의입고 벗기, 하의입고 벗기, 화장실 사용하기, 소변조절하기, 대변조절하기, 침대·의자·휠체어로 옮겨앉기, 번기로 옮겨앉기, 욕조 및 샤워기로 옮겨앉기, 걷기 및 휠체어 이동, 계단 오르내리기, 이해하기, 표현하기, 사회적 상호작용, 문제해결, 기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민감하고 객관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평가도구로 장애의 심한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에 따라 보조자의 필요여부를 알 수 있는 척도이다. Cronbach's $\alpha=0.82$ 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 내 자립활동과 물리적 환경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다루기 때문에 이해하기, 표현하기, 사회적 상호작용, 문제해결, 기억의 항목들은 제외하였다. 최은정, 자기효능강화 뇌졸중 프로그램의 효과, 서울대 박사논문, 2002, p.72

14) 이연숙, 장애인가구맞춤형 주택계획가이드라인, 주거복지시스템연구단, 디자인 매릿, 2015, pp.1-97

15) 이연숙, 장미선, 박지영, 지체장애인 맞춤형 주택 디자인가이드라인의 사용자 혜택 분석,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26권 6호, 2015, pp.1-10

16) 박지영, 장미선, 이연숙, 농촌 지체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저해하는 주거 실내환경 특성 사례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7권 2호, 2015, pp.7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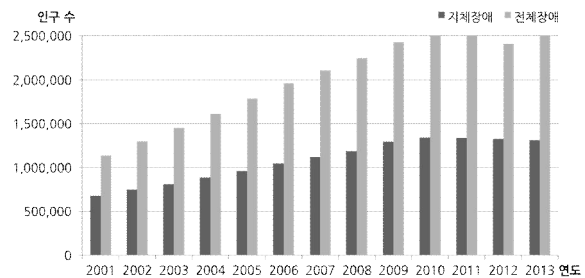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χ^2 , t-test, paired t-test, Pearson의 r 등을 시행하였다.

2. 문헌고찰

2.1. 지체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지체장애는 상지와 하지, 신체구조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¹⁸⁾ 대부분 반신에 편마비가 오며 척수 손상 시에는 사지마비나 하지마비가 유발된다. 지체장애는 장애의 원인이나 정도가 다양하며 물리적 환경의 제약을 크게 받는다. 뇌병변 장애의 경우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에 제한을 받는 상태를 말하며, 보행 혹은 일상생활동작의 제한에 따라 상당한 정도, 경중한 정도, 경미한 정도로 분류된다.¹⁹⁾ 대부분 반신에 편마비가 오며 척수 손상 시에는 사지마비나 하지마비가 유발된다.²⁰⁾ 이러한 지체장애는 발병률이 높고, 다른 장애와 달리 신체적인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는 특성을 가진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물리적 환경이 작용하며,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²¹⁾

국내 지체장애인의 규모는 등록된 전체 장애인 수 2,501,112명 중 52.3%인 1,309,285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²²⁾



<그림 1> 연도별 지체장애인 인구변화

지체장애인의 인구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지체장애인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여 지체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그림 1>

17) 본 연구에 대한 IRB 신청날짜는 8월 24일이었으며, 두 달의 시간 동안 심의절차를 거쳐 10월 27일 연구 승인을 받았다.

18) 이철수 외 공저, 사회복지학 사전, 2009, p.512

19) 보건복지부, 제 3차 편이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2010, p.1

20) 박미영, 신체장애인의 주거 공간 개조를 위한 체크리스트, 건국대 석사논문, 2011, p.11

21) 장윤정, 이연숙,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요구 조사, 대한건축학회, 제17권 3호, 2001, p.70

22)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인통계, 2011, p.25

2.2. 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장애인에게 있어 자립이란 당사자들이 완전한 사회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며, 자기결정과 역량강화를 통해 자신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이다.²³⁾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당사자가 자신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려는 움직임이다. 지체장애인들의 신체활동 저하는 일상생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 시켜 결과적으로 삶의 질과 생활 만족도의 저하를 낳게 되어 사회문제로 확산시킬 수 있다.²⁴⁾ 주택 내 재가 지체장애인이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면 독립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립심을 높일 수 있으며 그만큼 동거인 혹은 생활보조인의 부담이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국가재정의 낭비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임상에서는 급성기만 지난 환자들에게 단편적인 일상생활활동에 대한 평가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²⁵⁾

장애인의 일상생활 자립에 대한 평가는 주로 일상생활 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 이하ADL)과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 이하 IADL)을 활용한다. 이 측정도구들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활동에 초점을 두고 ‘모든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다’,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까지 다섯 혹은 세단계로 나누어 평가한다.²⁶⁾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²⁷⁾ 또한 ADL과 IADL²⁸⁾을 함께 사용하여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자립도를 평가하였다. 장애인의 경우 일반인과 달리 자립정도에 있어 미묘한 차이가 있고, 그것은 그들의 생활에 있어서는 중요한 차이를 유발할 수 있어 일상생활 활동의 자립정도를 면밀히 파악해야 하는데, ADL이나 IADL로는 그것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 바로 기능적 독립 척도(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이하 FIM)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자립도를 측정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활동 수행 시 소요되는 시간과 조력자의 도움 여부 등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자립도를

측정할 수 있다.²⁹⁾ K-FIM은 FIM을 한국인에 맞추어 개발된 것으로 K-FIM에서 자립도는 7점 만점에 1-5점까지는 조력자가 필요한 단계, 6-7점은 조력자가 불필요한 단계로 구분된다. 이를 의존도에 따라 구분하면, 완전 의존단계는 1-2점, 부분 의존단계는 3-5점, 독립 단계는 6-7점에 해당한다. 일상생활 항목은 크게 자가 간호, 조절, 가동성, 이동의 항목으로 구분된다.³⁰⁾

2.3 재가지체장애인의 주거실태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의 97%는 자신의 주택에서 거주하며 지역사회의 이웃들과 함께 생활하는 재가 장애인이다.³¹⁾ 장애인가구의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가구의 42%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광역시가 19%, 도지역이 39%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가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유형은 전국적으로 단독주택의 거주비율이 높으며, 도시지역은 아파트(45.8%)와 연립주택(10.5%)의 거주비율이 높은 반면, 농촌지역은 단독주택 거주비율(78.5%)이 월등히 높다.³²⁾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개조에 관한 연구는 일부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져 왔지만, 주로 정책적이거나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장애인 주택을 다루거나³³⁾ 혹은 연구자 입장에서의 주택을 평가하고 제안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³⁴⁾ 거주자 입장에서 장애인주택을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최근에 들어서야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지체장애인의 주거특성을 질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하는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연숙 외는 도시지역과 구별하여 농촌의 주거상황에 적합한 주택 개조 혹은 주택 계획 지침이 개발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³⁵⁾ 한편, 박지영 외는 도시지역의 재가 장애인을 현장 방문과 심층인터뷰를 통해 재가장애인의 주거 실태를 파악하였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에 집중된 제도적 기준의 미흡함을 언급하고 수요자 맞춤형 주거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³⁶⁾

23) Oliver, M. Understanding Disability: From Theory to Practice, Macmillan Press, London, 1996, p.18
24) 이윤정 외, 신체적 활동프로그램이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및 일상생활 활동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노년학, 제23권 4호, 2009, p.19
25) 김정운 외, 재가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작업치료학회지, 제21권 제1호, 2013, p.16
26) 일상생활동작능력(ADL)은 일상생활에 가장 필요한 6가지 동작-복욕, 옷갈아입기, 용변처리, 이동, 대소변 가누기, 식사하기-에 대한 수행능력을 통해 장애정도를 평가하도록 개발한 평가법이다. : 박옥희, 장애인복지론, 2001, p.122
27)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주거지원 방안 연구, 2010, pp.78-84
28) IADL은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으로서, ADL 보다 경증인 상태를 측정한다. 가사, 의사소통, 이동, 대중교통, 수단이용, 사회적 참여 등을 말한다. : 박미영, 신체장애인의 주거 공간 개조를 위한 체크리스트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2011, p.30

29) 박인혜, 뇌졸중 환자의 가족지지에 따른 일상생활활동과 삶의 질의 상관관계,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원 석사논문, 2009, p.16
30) 최은정, 자기효능강화 뇌졸중 프로그램의 효과, 서울대 박사논문, 2002, p.72
31) 윤영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과제와 방향, 2009, p.3
32) 국토해양부, 2009년 주거실태조사, 국토연구원, 2009, p.30
33) 최향일, 이동성 장애인의 주택 사용실태와 개조요구, 가톨릭대 석사논문, 2002, pp.1-142
34) 박남희 외, 시각장애인의 주거현황 조사연구, 디자인융합학회 논문집 제13권 5호, 2014, pp.327-341
35) 이연숙, 이동주, 박지영, 장애인 맞춤형 주택 계획 관점에서 본 농촌지역 지체장애인 주거 특성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통권113호, 2015, pp.154-162
36) 박지영, 이동주, 관찰 및 심층인터뷰를 통한 재가장애인의 주거실태 분석, 한국주거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6권 2호, 2013, p.100

3. 조사 결과

본 연구의 조사결과는 크게 사회인구학적 특성, 주택 관련 특성, 현 주택에서의 자립도, 자립을 저해하는 실내 환경요소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3.1. 사회인구학적 특성

농촌과 도시지역 재가치체장애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2>

<표 2> 조사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n=80

특성	농촌		도시		계		X ²	
	f	%	f	%	f	%		
성별	남	24	60.0	24	60.0	48	60.0	-
	여	16	40.0	16	40.0	32	40.0	
	계	40	100.0	40	100.0	80	100.0	
연령	55세 미만	17	42.5	34	85.0	51	63.8	15.632 ***
	55세 이상	23	57.5	6	15.0	29	36.2	
	계	40	100.0	40	100.0	80	100.0	
장애 등급	1급	3	7.5	7	17.5	10	12.5	-
	2급	3	7.5	8	20.0	11	13.8	
	3급	9	22.5	10	25.0	19	23.8	
	4급	10	25.0	7	17.5	17	21.3	
	5급	10	25.0	8	20.0	18	22.5	
	6급	5	12.5	0	0.0	5	6.3	
	계	40	100.0	40	100.0	80	100.0	
보조 기구 사용 여부	사용	24	60.0	7	17.5	31	38.8	15.221 ***
	미사용	16	40.0	33	82.5	49	61.3	
	계	40	100.0	40	100.0	80	100.0	
직업	유	5	12.5	8	20.0	13	16.3	-
	무	35	87.5	32	80.0	67	83.8	
	계	40	100.0	40	100.0	80	100.0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	28	70.0	23	57.5	51	63.8	-
	50만원 이상	12	30.0	17	42.5	29	36.3	
	계	40	100.0	40	100.0	80	100.0	

- : Not Significant, *** : p<0.00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는 성별, 연령, 장애등급, 보조기구 사용여부, 직업, 월평균 소득을 활용하였고, 지역 간 차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다.<표 2>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남성이 60%, 여성이 40%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다소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장애등급에 있어서 1-3등급의 장애를 가진 응답자는 응답자의 50%를 차지하였다. 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응답자(61.3%)가 사용하는 응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들은 주로 무직인 상태로(83.8%), 월평균 5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많았다.(63.8%)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있어 두 지역 간 차이를 살펴볼 때, 연령과 보조기구사용여부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지역은 55세 이상(57.5%)의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도시지역에 거주한 재가장애인은 55세 미만이 많았다(85.0%), 보조기구사용여부의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82.5%)이 농촌에 거주하는 장애인(40.0%)에 비해 이동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2. 주택관련 특성

연구 대상의 주택 관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주택 유형, 거주기간, 주택규모, 개조여부에 대해 조사하였고, 이들 특성을 도시와 농촌지역에 따라 비교분석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다.<표 3>

<표 3> 조사 대상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관련 특성 비교 n=80

특성	농촌		도시		계		X ²	
	f	%	f	%	f	%		
주택 유형	단독주택	28	70.0	2	5.0	30	37.5	-
	비 단독주택	12	30.0	38	95.0	50	62.5	
	계	40	100.0	40	100.0	80	100.0	
거주 기간	10년 미만	10	25.0	14	35.0	24	30.0	-
	10년 이상	30	75.0	26	65.0	56	70.0	
	계	40	100.0	40	100.0	80	100.0	
주택 규모	20평 미만	21	52.5	7	17.5	28	35.0	10.769 **
	20평 이상	19	47.5	33	82.5	52	65.0	
	계	40	100.0	40	100.0	80	100.0	
개조 여부	유	21	52.5	10	25.0	31	38.8	6.373 [*]
	무	19	47.5	30	75.0	49	61.3	
	계	40	100.0	40	100.0	80	100.0	

N.S : Not Significant, * : p<0.05, ** : p<0.01

조사 대상자의 전반적인 경향을 먼저 살펴보면, 주택 유형의 경우 단독주택이 37.5%, 비 단독형 주택이 62.5%로, 아파트 혹은 다가구/다세대와 같은 비 단독형 주택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거주기간은 현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비율(70%)이 더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주택규모는 66m²(구 20평형)이상 규모의 주택에 사는 응답자(65.0%)가 66m²미만 규모의 주택에 사는 응답자(35.0%)보다 더 많았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개조 여부에 대해서는 개조를 하지 않은 응답자(61.3%)가 개조를 한 응답자(38.8%)보다 많았다.

이러한 현 주택관련 특성이 지역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주택규모와 개조여부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농촌지역의 경우 66m²미만 규모의 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52.5%)가 많았고 도시지역은 66m²이상 규모의 주택(82.5%)에 살고 있는 응답자가 많았다. 현 주택 개조여부의 경우, 농촌지역 거주자는 52.5%가 개조를 했고, 도시지역 거주자는 75.0%는 개조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3.3. 현 주택에서의 일상생활 자립도

연구 대상의 현 주택 내 일상생활 정도를 K-FIM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전체 응답자의 전반적인 일상생활 자립도는 7점 만점 중 평균 4.94점으로 '부분 의존'에 해당되어 간접적인 도움이 필요한 정도였다. 하위 항목을 기준으로, '자가 간호'에 있어 자립도는 평균 4.83점, '조절'에 있어 자립도는 평균 5.88점, '가동성'의 자립도는 4.83점, '이동능력'의 자립도는 4.47점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 대상자들은 이동할 때 자립도가 가장 낮았는데, '자가간호', '가동성', '이동' 영역에서는 최소 수준의 보조를 필요로 했고, '조절' 영역에서는 감독 수준의 보조를 필요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조사 대상의 일상생활 자립도 비교 n=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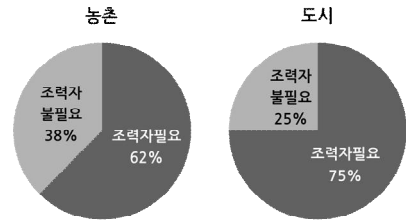
항목	농촌		도시		전체		
	M	SD	M	SD	M	SD	
자가 간호	식사	5.00	1.48	5.40	1.74	5.20	1.62
	몸단장	4.95	1.50	4.68	1.93	4.81	1.72
	목욕	4.30	1.84	4.35	1.86	4.33	1.84
	상의입고 벗기	4.95	1.60	5.05	1.84	5.00	1.71
	하의입고 벗기	4.93	1.62	4.98	1.76	4.95	1.68
	화장실 사용	4.78	1.54	4.65	1.85	4.71	1.69
	소 계	4.82	1.42	4.85	1.72	4.83	1.57
조절	소변조절	5.75	1.55	6.03	1.79	5.89	1.67
	대변조절	5.73	1.54	6.00	1.84	5.86	1.69
	소 계	5.74	1.54	6.01	1.81	5.88	1.68
가동성	침대, 의자, 휠체어로 옮겨 앉기	4.90	1.57	4.70	1.91	4.80	1.74
	변기로 옮겨 앉기	5.05	1.55	4.70	1.91	4.88	1.74
	욕조, 샤워기로 옮겨 앉기	5.00	1.52	4.63	1.90	4.81	1.72
	소 계	4.98	1.52	4.68	1.88	4.83	1.71
이동	걸기, 휠체어 이동	4.80	1.54	4.38	1.92	4.59	1.74
	계단오르내리기	4.73	1.66	3.98	2.01	4.35	1.87
	소 계	4.76	1.58	4.18	1.93	4.47	1.78
계	4.99	1.36	4.88	1.69	4.94	1.52	

자립도 측정 스케일
 : 조력자 불필요 - 독립(완전독립7점, 부분독립 6점)
 조력자 필요 - 부분의존(감독필요 5점, 최소보조필요 4점, 중간보조필요 3점)
 완전의존(최대보조필요 2점, 완전보조필요 1점)

세부 항목으로 살펴보면, '자가간호' 항목 중 '목욕' 항목에서의 자립도가 평균 4.33점으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는 '이동' 항목중 '계단오르내리기'(4.35점), '자가간호'의 화장실 사용하기(4.71점)의 순서였다. 반면, 대소변 조절 행위에 있어서는 조력자가 불필요한 수준에 가까워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한 정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도 평균에 있어서 지역 간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농촌의 경우 5.08점, 도시는 4.93점의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일상생활 자립에 있어서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집단(6-7점)과 도움이 필요한 집단(1-5점)으로 구분하였을 때, 농촌 응답

자에 비해 도시지역 응답자가 조력자를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그림 2> 일상생활 활동에 있어서 조력자 필요여부 지역 간 비교
 자립도 1-5점: 조력자 필요 / 자립도 6-7점: 조력자 불필요

구체적으로 '계단 오르기' 항목에서 도시지역 응답자(72.5%)는 농촌지역 응답자(47.5%)에 비해 도움을 필요로 하였고, '건기 및 휠체어 이동'에서도 농촌지역 응답자(47.5%)에 비해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다(70%).

3.4. 일상생활의 자립을 저해하는 실내환경요소

현 주택의 불편 정도를 5점 Likert척도로 질문한 결과, 현 주택에서 느끼는 전반적인 불편정도는 5점 중 평균 2.72점으로 나타나, 조사 대상자들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다소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표 5>

<표 5> 현 주택의 불편정도 비교 n=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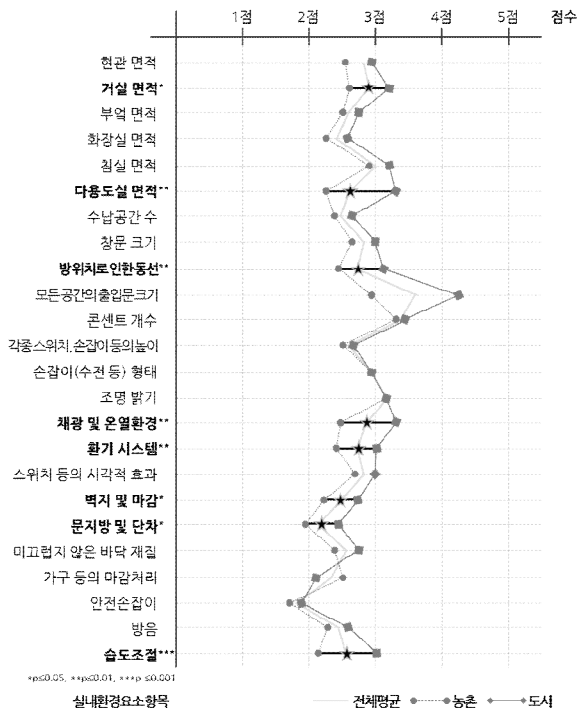
특성	농촌		도시		계		X ²
	f	%	f	%	f	%	
불편 정도	매우 불편하다	9	22.5	4	10.0	13	16.3
	불편하다	14	35.0	25	62.5	39	48.8
	보통이다	9	22.5	5	12.5	14	17.5
	편하다	7	17.5	6	15.0	13	16.3
	매우 편하다	1	2.5	0	0.0	1	1.3
	계	40	100.0	40	100.0	80	100.0
	평균 값	2.51		2.92		2.72	

- : Not Significant
 매우 불편하다(1점)-매우 편하다(5점)

'불편하다'이상의 응답(불편하다, 매우 불편하다)을 한 대상자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65.1%로 절반 이상이 생활공간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불편한 정도에 있어서 지역 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들이 현재 주택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하는데 있어 불편한 실내환경요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3>과 같다. 실내환경요소가 전체 응답자의 일상생활 자립을 저해하는 정도

를 살펴보면, 5점 기준 평균 2.72점으로 나타났고, 농촌 지역(평균 2.51점)이 도시지역(평균 2.92점)에 비해 주거 공간 내에서 자립적인 생활이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안전손잡이가 없어 생활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1.79점), 응답자의 86.3%가 안전손잡이 부재로 인해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70%가 문지방 단차(평균 2.19점)라고 응답하였으며, 가구 등의 둥근 마감처리의 부재(평균 2.31점)의 순서로 자립을 저해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모든 공간의 출입문 크기(평균 3.60 점)와 콘센트의 개수(평균 3.36점) 등의 요소는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실내환경요소 비교
매우 불편하다(1점)-매우 편리하다(5점)

일상생활 자립을 저해하는 실내환경요인에 대한 조사에서 두 지역은 총 8개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거실 면적’, ‘다용도실 면적’, ‘동선에 용이하지 않은 방의 위치’, ‘채광 및 온열 환경’, ‘환기 시스템’, ‘벽지 및 마감의 노후화’, ‘문지방 및 단차’, ‘습도조절’로, 이들 요인에서 농촌지역 장애인들이 도시 지역 장애인들에 비해 더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8개의 실내환경요소들이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지역 간의 차이가 있었던 연령과 보조기구사용여부 항목과 8개의 실내환경요소 항목과의 Pearson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6>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거주자 모두 ‘연령’과 ‘문

지방 및 단차’ 항목 간에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문지방 및 단차로 인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보조기구 사용여부의 경우, 두 지역 모두 실내환경요소와 보조기구 사용여부 간에 상관관계가 없었다.

<표 6> 지역간 차이가 있었던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실내환경요소와의 상관관계

실내 환경 요소	사회인구학적 특성				주택 특성			
	연령		보조기구 사용여부		주택규모		현 주택 개조여부	
지역구분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거실면적	-	-	-	-	-	0.413*	-	-
다용도실 면적	-	-	-	-	-	0.329*	-	-
방 위치	-	-	-	-	-	-	-	0.326*
채광, 온열환경	-	-	-	-	-	-	-	-
환기	-	-	-	-	-	-	-	-
마감재	-	-	-	-	-	0.442**	-	-
문지방 및 단차	0.362*	0.367*	-	-	-	0.358*	-	-
습도조절	-	-	-	-	-	-	-	-

- : Not Significant, * : p≤0.05, ** : p≤0.01

주택관련 특성 중 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주택규모’, ‘현 주택 개조여부’와 8개의 실내환경요소와의 Pearson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표 6> 농촌지역은 주택특성과 실내환경요소간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지역은 주택 규모의 경우, 거실면적, 다용도실면적, 벽지 및 마감, 문지방 및 단차와 주택규모가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주택 규모가 작을수록 해당 요인들에 대한 불편함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개조여부와 8개의 실내환경요소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도시지역 장애인의 경우에만 동선에 용이한 방 위치 항목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개조를 하지 않은 응답자들이 방의 위치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없었던 실내환경요소들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사회인구학적 특성, 주택특성), 일상생활 자립도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분석을 진행하였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실내환경요소와의 관계를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7>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성별의 경우, 전체면적과 부엌 면적, 콘센트 개수, 각종 스위치, 손잡이, 가구 등의 높이, 스위치 등의 시각적 효과에서의 불편함이 성별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이 이러한 불편함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등급은 창문의 크기, 바닥 재질과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창문의 크기와 미끄럽지 않은 바닥재질 미설치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직업유무와 실내환경요소의 관계를 살펴보면, 모든 공간의 출입문 크기와 각종 스위치, 손잡이, 가구 등의 높이, 조명계획, 스위치 등의 시각적 효과가 직업과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직업이 없는 응답

자들이 이들 특성에 대해 더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월 평균 소득의 경우, 창문의 크기와 스위치 등의 시각적 효과, 가구 등의 등근 마감처리 미설치 항목들이 소득과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소득이 낮을수록 이들 항목에 대한 불편함을 더 느끼고 있었다.

<표 7> 지역간 차이가 없었던 일반적 특성과 실내환경요소와의 상관관계

실내환경요소	사회인구학적 특성				주택 관련 특성	
	성별	장애 등급	직업유무	월 소득	주택유형	거주기간
전체면적	0.289'	-	-	-	0.278'	-
현관면적	-	-	-	-	0.245'	-
부엌면적	0.272'	-	-	-	0.277'	-
화장실면적	-	-	-	-	0.283'	-
침실면적	-	-	-	-	-	-
수납공간 수	-	-	-	-	-	-
창문 크기	-	-0.248'	-	0.226'	-	-
출입문 크기	-	-	0.308''	-	-	-
콘센트 개수	0.244'	-	-	-	-	-
가구 높이	0.378''	-	0.367''	-	0.342''	-0.317''
손잡이 형태	-	-	-	-	0.238'	-
조명계획	-	-	0.244'	-	-	-
시각적 효과	0.332''	-	0.288''	0.273'	-	-
바닥 재질	-	-0.244'	-	0.233'	-	-0.231
등근 마감처리	-	-	-	-	-	-
안전손잡이	-	-	-	-	0.304''	-
방음	-	-	-	-	0.263'	-

- : Not Significant, * : p≤0.05, ** : p≤0.01

주택관련 특성 중 주택유형과 실내환경요소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주택 면적, 현관면적, 부엌면적, 화장실면적, 각종 스위치, 손잡이, 가구 등의 높이, 손잡이(수전 등) 형태, 안전손잡이 미설치, 방음에 대해 불편함 정도가 주택유형과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이 이들 요소에 대한 불편함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의 경우, 각종 스위치 및 손잡이 등의 높이와 미끄러운 바닥 재질로 인한 불편함과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현재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수록 이 두 요소에 있어 불편함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상생활 자립도와 실내환경 요소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전체 일상생활 수행항목에 대한 평균 자립도와 실내환경요소 간의 상관관계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던 것은 창문의 크기와 모든 공간의 출입문 폭(크기), 손잡이(수전 등) 형태였다. 이들 요소에 대해 불편함을 느낄수록 평균 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 항목별로 살펴보면, 자가간호와 가동성의 평균 자립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던 실내환경요소는 전체 평균 자립도와 상관관계가 있었던 항목과 일치했다.

<표 8> 자립유형별 실내환경요소간의 상관관계

실내환경요소	일상생활 자립 항목			
	자가 간호	조절	가동성	이동
전체면적	-	-	-	-
현관면적	-	-	-	-
부엌면적	-	-	-	-
화장실면적	-	-	-	-
침실면적	-	0.326''	-	-
수납공간 수	-	-	-	-
창문 크기	0.227'	-	0.249'	-
출입문 크기	0.254'	0.288''	0.242'	-
콘센트 개수	-	-	-	-
가구 높이	-	-	-	0.233'
손잡이 형태	0.326''	0.229'	0.341''	0.420''
조명계획	-	-	-	0.274'
시각적 효과	-	-	-	-
바닥 재질	-	-	-	-
등근 마감처리	-	-	-	-
안전손잡이	-	-	-	-
방음	-	-	-	-

- : Not Significant, * : p≤0.05, ** : p≤0.01

창문의 크기, 출입문폭, 손잡이 형태에 불편함을 느낄수록 자가간호와 가동성에 대한 일상생활 활동을 할 때, 자립도가 낮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조절의 경우 침실면적과 출입문 폭, 손잡이 형태(수전 등)와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실면적과 출입문 폭, 손잡이 형태에 불편을 겪는 응답자들은 조절자립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의 경우 각종 스위치, 손잡이, 가구 등의 높이, 손잡이 형태, 조명계획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치 등의 높이, 손잡이 형태, 조명계획에 불편을 느낄수록 이동과 관련된 일상생활 활동 수행 시 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종합 논의

본 연구는 재가 지체장애인의 자립을 저해하는 실내환경요소를 파악하고, 이들 요소가 농촌과 도시지역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상생활의 자립을 저해하는 실내환경요소를 파악하기 전에 현재 주택의 불편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들의 절반을 훨씬 넘는 장애인들이 현재 주택이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개별 요소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안전손잡이의 부재와 바닥 단차, 가구의 뽕족한 모서리 등이 응답자들의 자립적인 생활을 저해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지역 재가 지체장애인 실태조사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농촌지역의 경우 주택에 안전손잡이가 설치된 사례가 전무하였고, 지형에 맞춰 재래식으로 지어져 자연적으로 단차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도시 지역은 농촌과 달리 아파트 및 다세대/다가구 등의 현대식 주택에 거주하는 대상자들이 다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손잡이의 부재와 바닥차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는 것은, 도시지역 응답자들의 상당수가 현재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자들로 주택을 개조한 사례도 적어 전반적인 주거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을 배려하여 공급되는 현재의 아파트는 장애인관련 법규의 적용을 의무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나,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이런 법규의 제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역 간 차이가 있었던 자립을 저해하는 실내환경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실면적, 다용도실 면적, 방의 위치, 채광 및 온열환경, 환기시스템, 벽지 및 마감의 노후화, 문지방 및 단차, 습도조절로 나타났다. 이 요인들에 대해 농촌지역 거주자들이 도시지역 거주자들에 비해 좀 더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도시지역의 소규모 주택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거실과 다용도실의 면적이 좁아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시지역의 경우 마당이 있는 농촌지역의 단독주택과 달리 모든 활동이 실내공간에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모든 가족 구성원이 거실과 다용도실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들 공간에 대한 불편정도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동선에 용이하지 않은 방의 위치와 바닥 단차의 경우 화장실이 외부에 있는 주택이 많았던 농촌지역 거주자들이 전반적으로 불편함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의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개조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방의 위치와 바닥의 단차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개조를 통해 변화한 도시지역 장애인의 새로운 주거요구에 맞춰 공간을 배치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채광 및 온열 환경과 환기 시스템, 습도조절의 경우도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더 열악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의 경우 적정 환경을 갖추기 위해 스스로 주택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개조의 경우 지붕개선이나 태양열 집열기 설치 등만을 지원하고 있어 취약한 주거공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지역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내환경들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특성, 주택특성, 자립항목에 따라 일상생활 자립을 저해하는 실내환경요소를 살펴보았을 때,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실내요인들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지역뿐만 아니라 대상의 특성, 주거환경 특성에 따라 느끼는 불편함이 다르고 필요로 하는 항목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전반적인 자립도와 실내환경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살

펴보면 창문의 크기, 출입문 폭, 손잡이(수전 등) 형태로 인해 어려움이 생길수록 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창문의 크기는 일조권, 환기 등에 영향을 미쳐 실내환경의 쾌적성을 좌우하는데, 몸이 불편한 거주자가 장시간 주택 내 거주하는 데에 실내환경의 쾌적성이 떨어진다면 그들의 자립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여겨진다. 출입문 폭의 경우, 본 조사 대상 장애인들이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보여 진다. 전술하였듯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지체장애인들은 실내환경요소의 적정성이 낮을수록 일상생활 수행 항목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립을 저해하는 실내환경요소들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주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창문의 경우, 휠체어나 이동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거주자도 접근할 수 있는 용이한 형태로 되어야 하며, 잠금장치도 조작이 쉬운 것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개폐조작이 쉽고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창문의 크기를 계획하여야 한다. 출입문의 경우 휠체어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도록 문 폭을 800mm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회전반경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출입문이 열리는 방향을 조정해야 한다. 또한, 미닫이 문으로 교체함으로써, 불편함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손잡이 및 수전의 경우 상지 지체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불편요소인데, 막대형이나 레버형의 형태로 누구나 잡기 쉽고 용이한 형태로 대체되어야 한다.

지체장애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이러한 실내환경특성들이 더 이상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개선된다면 주택은 더 이상 이들에게 불편한 공간이 아닌 자립심을 기를 수 있는 양질의 환경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4. 결론 및 제언

우리사회 다양한 소외계층들이 보편적 복지의 대상으로서 질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서 안전하고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은 그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재가 지체장애인의 자립을 저해하는 실내환경요소를 파악하고, 이들 요소가 농촌과 도시지역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농촌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쇠퇴하는 농촌지역의 전형이라 생각되는 영월지역에 거주하는 재가 지체장애인과 도시지역으로는 서울지역의 재가 지체장애인을 그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들의 자립을 저해하는 현 주택의 실내환경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장애인의 주거상황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평가 하였던 기존 연구와는 달리 지체장애인의 자립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장애인 스스로가 본인의 자립에 영향을 주는 실내환경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게 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장애인에게 있어 자립이란 자기 결정과 역량 강화를 통해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움직임이다.³⁷⁾ 본 연구는 거주자 스스로가 본인의 자립생활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진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데에 의의를 가진다.

둘째, 동일한 재가 지체장애인이더라도 그들이 사는 지역과 현재 주택의 실태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립을 저해하는 기존 주거환경요소를 살펴보고 지역과 개인특성에 따른 차이를 밝혀냄으로써 향후 장애인을 위한 주거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장애인 주택 계획 시 관련 전문가들에게 어떠한 실내환경 요소가 제공되어야 하는 지 등에 대한 원칙을 세우는 데에 참고가 되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

셋째, 자립을 저해하는 실내환경요소를 도출함으로써 지체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수행함에 있어 도움을 적게 받거나 좀 더 수월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개인이 요구하는 실내환경요소로 설치를 했을 경우, 주거공간에서 안정되고 자립적이고 자존감 있는 삶을 지속할 수 있으며, 기존에 필요했던 타인의 도움을 해소하여 가족 혹은 활동보조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인력과 국가재정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지체장애인 주택환경 계획 시 획일적으로 개조공사 등을 시행하기 보다는 각 거주자 특성 관점에서 융통성 있고 다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 여겨진다. 해당 장애인의 사용 불편정도와 비용, 제한점 등이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농촌 지역 상황을 감안하여, 25개의 실내환경요인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지체장애를 동반한 중복장애를 포용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측면에서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의 범위 내에서 초래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지역별, 장애유형별 전국적으로 범위를 넓히고 각 특성에 따른 요구들을 파악하여 다양한 주거환경 특성을 다룰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장애를 저해하는 환경적 요인을 없앨 때 실제 이들이 지체장애인의 자립을 증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택개조·계획 시 활용될 수 있는 실내환경요소 항목들이 좀 더 세

밀하게 검증되고 보완되는 작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경우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처럼 주택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 지역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강미나 외, 장애인 주거실태와 주거정책 연구, 국토연구원, 2010
2. 국토해양부, 2009년 주거실태조사, 국토연구원, 2009
3. 보건복지부, 제 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2010
4. 보건복지부,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2
5. 이연숙, 장애인가구맞춤형 주택계획가이드라인, 주거복지시스템 연구단, 디자인 매릿, 2015
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 2001
7.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주거지원 방안 연구, 2010
8. Kauffman, Geriatric Rehabilitation Manual. Churchill livingstone, Philadelphia, 1999
9. RW Marans, Basic human needs and the housing environment, Housing People, London, 1977
10. 김보애 외, 국내 기존 장애인주택 가이드라인의 구성체계분석,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제46권, 2015
11. 김보애 외, 국내 장애인주택 디자인가이드라인 내용분석 연구, 한국의료복지학회, 제21권 1호, 2015
12. 김인숙, 농어촌 장애인 주거 공간의 불편요소 분석 및 환경 개선 방안 : 단독형 주거형태를 중심으로, 보조공학저널 제2권 2호, 2008
13. 김정운 외, 재가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작업치료학회지 제21권 제1호, 2013
14. 박남희 외, 시각장애인의 주거현황 조사연구, 디자인융복합학회 논문집 제13권 5호, 2014
15. 박미영, 신체장애인의 주거 공간 개조를 위한 체크리스트, 건국대 석사논문, 2011
16. 박지영, 이연숙, 이동주, 관찰 및 심층인터뷰를 통한 재가장애인의 주거실태분석, 한국주거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6권 2호, 2013
17. 박지영, 장미선, 이연숙, 농촌 지체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저해하는 주거 실내환경 특성 사례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7권 2호, 2015
18. 윤재영, 장애인 자립생활의 의미와 측정 : 자립생활센터 이용 장애인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논문, 2010
18. 이연숙, 이동주, 박지영, 장애인 맞춤형 주택 계획 관점에서 본 농촌지역 지체장애인 주거 특성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통권113호, 2015
19. 이연숙, 장미선, 박지영, 지체장애인 맞춤형 주택 디자인가이드라인의 사용자 태백 분석,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26권 6호, 2015
20. 이윤정 외, 신체적 활동프로그램이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및 일상생활 활동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노년학, 제23권 4호, 2009
21. 장윤정, 이연숙,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요구조사, 대한건축학회, 제17권 3호, 2001
22. 최윤정, 자기효능강화 뇌졸중 프로그램의 효과, 서울대 박사논문, 2002
23. 최향일, 이동성 장애인의 주택 사용실태와 개조요구, 가톨릭대 석사논문, 2002

[논문접수 : 2015. 12. 23]

[1차 심사 : 2016. 01. 06]

[게재확정 : 2016. 01. 18]

37) 윤재영, 장애인 자립생활의 의미와 측정 : 자립생활센터 이용 장애인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논문, 2010, p.12